

변수는 숫자가 큰 것이 가늘고, 데니어는 숫자가 적으면 가늘다.

방적사의 굵기는 변수(표시는 's로 나타낸다)로 나타낸다. 변수의 숫자가 클수록 가는 실이다. 원단을 제작하려고 할 때, 얇은 천이라면 세변수의 실을 사용하고 두꺼운 천이라면 태변수의 실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린으로 만든 손수건이라던가 보일로 만든 블라우스감 등 얇고 투과해 보이는 옷감에는 60's 에서 160's 정도의 실을 사용한다. 캔버스라던가 덕, 범포 등의 두껍고 무거운 면포에는 60's 또는 그 보다 태변수의 실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김영이라면 20's~40's, 블루진에 사용하는 데님은 16's 정도이다. 가는 변수의 단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사를 2올 꼬아 합하여 1올의 제작사로 만든 합사가 사용된다. 가는 단사일지라도 합사로 하면 양쪽의 굵기를 만족시키는 굵은 실로 된다. 예를 들면 100's 합사라면 1/100과 1/100을 더한 수의 역수인 50's의 굵기로 되는 까닭이다(숫자의 100과 100을 더하면 200이 된다. 이것에 's를 붙여 200's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면 2배의 굵기가 된 것을 나타내지 않고 반대로 가늘다는 것을 나타내 버리고 만다. 물론 장섬유사, 예를 들면 폴리에스터라던가 나일론의 경우에는 그들의 섬도를 합하기만 해도 된다. 가령 폴리에스터 75데니어와 나일론 70데니어를 합한 것이라면 145데니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최종 변수의 단사 변수 굵기의 실을 적용한다면 수고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만들어진 옷감의 맛과 튼튼함은 다르다. 같은 굵기의 실이라면 합사의 쪽이 단사보다도 2배이상 튼튼하다고 한다. 천의 표면은 합사를 사용하는 쪽이 직목(제작사가 경위사로 제작 될 때 생긴다)이 균정하고 아름답고 광택이 있다. 바닥이 짜임새가 좋고 감촉도 좋다. 물론 잔털도 적다. 이러한 점에서 합사쪽이 고급품으로 되어 있다.

기왕에 변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나열하기로 한다. 위에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단섬유 방적사에 사용하는 실의 굵기로써 무게를 고정하는 항중식 표시

방법으로 1파운드(453.6g) 무게의 실이 840yds(781.1m)의 몇 배수로 길이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중량이 1파운드인 실의 길이를 측정하였더니 $840 \times 20 = 16,800\text{yds}$ 의 길이가 측정되었다면 840yds의 20배가 되기 때문에 면번수로 20's라고 한다. 항중식으로 나타내는 실의 굵기는 변수라고 부르며 숫자가 클수록 가는 실이 된다.

또 하나는 장섬유 필라멘트에 사용하는 실의 굵기로써 길이를 고정하는 항장식 표시방법으로 450m 길이의 실이 0.5g의 몇 배수로 무게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다. 이것은 단위조직의 편리상 9,000m 길이의 실이 1g의 몇 배수로 무게가 나오는가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길이 9,000m인 실의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70g이었다면 70데니어(70d로 표시)가 된다. 항장식으로 나타내는 실의 굵기는 섬도라고 부르며 숫자가 클수록 굵은 실이 된다. 결국 변수는 숫자가 클수록, 데니어는 숫자가 작을수록 가는 실이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변수와 섬도를 비교해 보려면 상수 5,315를 기억해 두자

면사 40's는 몇 데니어 정도가 될 것인가?

이때는 $5,315/150 = 35.43 \div 133$ 데니어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폴리에스터 150데니어는 면번수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또한 $5,315/40 = 132.875 \div 133$ 데니어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폴리에스터 150데니어는 면번수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또한 $5,315/150 = 35.43 \div 35's$ 정도의 굵기로 추정할 수 있다.

1) 보일(voile)

성기게 짜서 비쳐보이는, 얇고 가벼운 직물을 말하며 영어의 veil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다. 강한 보일 꼬임을 준 실을 위사, 경사로 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명이 많으나, 마섬유라던가 화학섬유로 만든 것도 있고, 줄무늬, 격자무늬와 그 밖의 무늬를 넣어 짜기도 한다. 용도는 여성용 속옷, 블라우스, 스카프 실내장식품 등이다.

2) 데님(denim)

비교적 두꺼운 면직물의 일종, 현재는 나일론과의 혼방제품도 많다. 보통 경사에 감색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백색사를 사용하여 능직으로 짠다. 천은 강하고 내구력이 있기 때문에 가구, 침대 등의 커버나 작업복 등에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비교적 유연한 천을 만들어 실용적인 여성의류나 아동복에도 사용하고 있다.